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의장 후보 “연준의 소통 체계 바뀌어야”
- WSJ: 미 신규실업 청구건수 늘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연방재무장관, 걸프/아시아 국가들 통화스와프 요청

[중동 위기]
- Bloomberg: 호르무즈 긴장 속에 미 이란 협상 없어
- Bloomberg: 미국의 봉쇄 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거의 마비

[오일]
- YahooFinance: 미 이란 교착 상태에서 오일가 1백 불 위로 유지
- WSJ: 미 원유 비축량 늘어…수입도 증가

[주택]
- WSJ: 주택 시장 둔화 속에 일부 주택은 빨리 판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Tesla, AI·로보틱스 사업에 올해 2백50억 불 투자
- NYT: Anthropic, 초강력 AI 'Mythos' 공개… 글로벌 안보 지각 변동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Warsh Wants Fed Regime Change. Here’s Where to Start
연준 의장 후보 “연준의 소통 체계 바뀌어야”

- 연준 의장 후보인 Warsh는 연준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Regime Change)를 예고했다. 그가 주장하는 시스템 변화란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중앙은행의 소통 방식을 현재의 단편적인 견해 전달에서 미래 상황에 따른 대응 논리 제시로 전환하는 정책 운용의 전면적 혁신을 의미한다는 것.
- 그는 그동안 연준 관리들의 잦은 발언과 경제전망 요약이 지나치게 흩어져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여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사례를 본떠 다양한 경제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이 연준의 정책 집행 기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

WSJ: Jobless Claims Tick Up
미 신규실업 청구건수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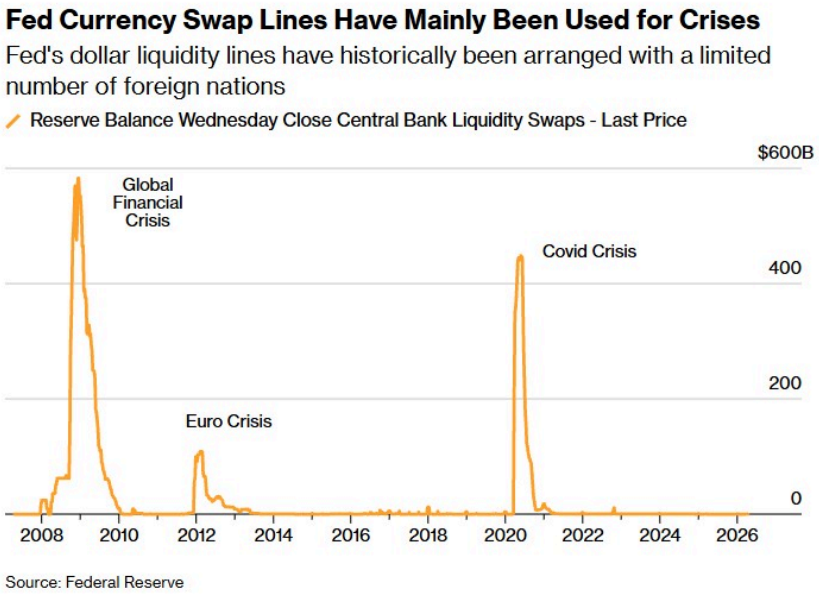
-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을 기록하며 그 전주(20만 8천 건) 기록과 시장 예상치인 21만 건을 모두 웃돌았다.
-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실업 지표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 시장 내부에서는 '낮은 고용- 낮은 해고' 양상이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 특히 뉴욕 연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하려는 기대감이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해고도 적지만 신규 채용 역시 위축된 노동 시장의 정체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essent Says Gulf, Asian Allies Requested Currency Swap Lines
연방재무장관, 걸프/아시아 국가들 통화스와프 요청

- 연방 재무장관 Scott Bessent은 걸프 지역 우방 및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미국에 통화스왑 라인 개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Bessent는 해당 협정이 해외 달러 중심의 대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자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통화스와프는 유동성 위기 시 양국 화폐를 맞교환해 현금 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현재 미국은 일본 은행 등 주요국과 이를 운용 중이다.
- 시장은 Bessent의 이번 행보를 우방국과의 금융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사

[중동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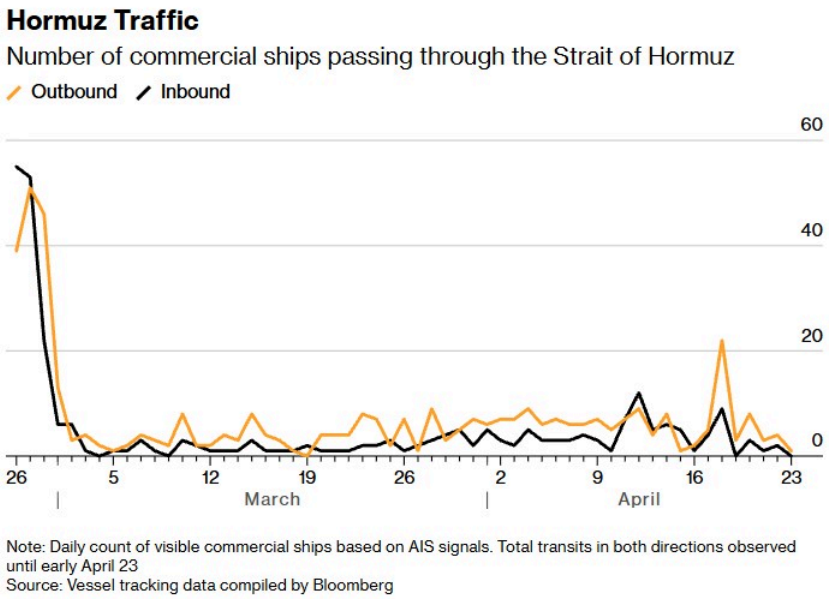
Bloomberg: US Says It Awaits Iran Move on Talks as Hormuz Tension Rises
호르무즈 긴장 속에 미 이란 협상 없어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의 해상 봉쇄가 지속되며 평화 협상이 불투명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트럼프는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는 선박을 격침할 것을 해군에 명령했는데 미군은 이란 항구를 오가던 유조선 두 척을 정지시키고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던 무국적 선박을 나포했다.
- 이란 역시 선박 세 척을 공격하며 8주째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사실상 폐쇄 상태로 묶어두고 있다.
- 앞서 트럼프는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며 정식 평화 협상을 위한 이란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의 군사적 충돌로 긴장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기사

Bloomberg: Shipping Through Hormuz Remains Largely Frozen After US Blockade
미국의 봉쇄 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거의 마비

-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은 여전히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며,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만 간헐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 이란 무장 고속정이 상선에 발포하고 미국이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차단하면서 해상 안보 위기는 더 확대되었다
- 외교적 노력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란의 응답을 기다리며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시장 분석가들은 통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해협의 물류 경로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Steadies as US-Iran Talks Stall, Keeping Hormuz Blocked
미 이란 교착 상태에서 오일가 1백 불 위로 유지

-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 재개가 불발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며 국제 유가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 브렌트유는 3거래일간 약 13% 급등한 뒤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트럼프는 휴전의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이란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란은 협상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
- 그 사이에 미군은 봉쇄를 피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차단했고, 이란은 선박 공격 및 나포로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이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흐름은 완전히 멈춰선 상태다.

기사

WSJ: U.S. Crude Oil Stockpiles Rise Amid Increase in Imports
미 원유 비축량 늘어…수입도 증가

- 미국 원유 재고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을 감소하면서 지난주 1백90만 배럴 증가한 4억 6,570만 배럴을 기록했다.
- 전략비축유(SPR)는 중동발 공급 차질에 따른 방출 여파로 4백10만 배럴 줄어든 4억 500만 배럴로 집계됐다.
- 반면 원유를 가공한 제품유의 시장에서는 휘발유 재고가 460만 배럴, 디젤·난방유 등 정제유 재고가 3백40만 배럴 각각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기사

[주택]

WSJ: In a Slow Market, Some Houses Are Still Selling Fast
주택 시장 둔화 속에 일부 주택은 빨리 판매

- 3월 중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매매 수요 기간 평균은 19일로, 전체 매물 평균인 56일과 비교해 37일의 격차를 보였다.
- 판매된 주택과 전체 매물 간의 이 같은 37일 소요 기간 차이는 2020년 이후 3월 수치로는 최대치다.
- 한마디로 상태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집은 빨리 매매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구매자들은 수리가 필요한 낡은 주택 구매를 주저하는 반면, 판매자들은 여전히 과열됐던 시장 수준의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Tesla Boosts Spending Plan to $25 Billion for AI, Robot Push
Tesla, AI·로보틱스 사업에 올해 2백50억 불 투자

- Tesla가 일런 머스크의 AI 및 로보틱스 기업 전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린다.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자본 지출은 지난해보다 약 3배 증가한 25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며,
- 이는 기존 예상치인 200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 머스크는 "자본 지출의 매우 유의미한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공격적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규모 지출에 따른 재무 부담 우려로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NYT: Anthropic’s New A.I. Model Sets Off Global Alarms
Anthropic, 초강력 AI 'Mythos' 공개… 글로벌 안보 지각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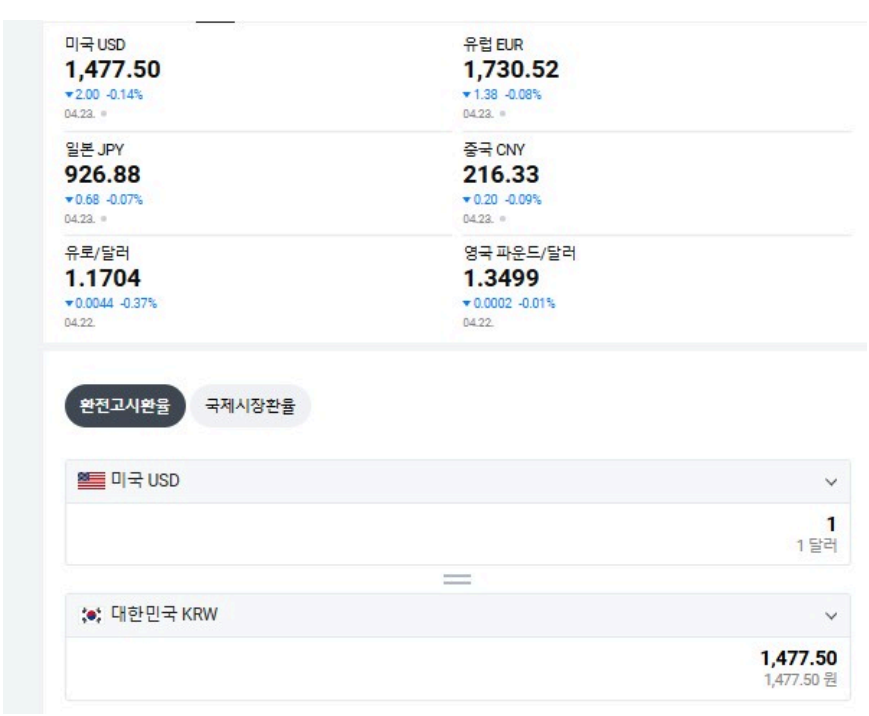
- Anthropic은 광범위하게 배포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위력을 지닌 AI 모델 'Mythos'를 공개하며, 미국 내 안보 관련 11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 출시 2주 만에 Mythos는 지정학적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 전 세계 금융망, 전력망, 정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국의 기간망도 파괴시킬수 있다고 한다.
- 현재 미국 외에는 영국만이 해당 기술을 공유받았으며, 영란은행 총재는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재무장관 역시 이 위협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비유하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은 AI 격차가 초래할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친크렘린 성향 매체는 Mythos를 "핵폭탄보다 위험한 존재"라고 평가하며 기술적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9,462.30	-28.5	-0.06%
US 500	7,146.20	+8.3	+0.12%
Dow Jones	49,442.75	-47.28	-0.10%
S&P 500	7,146.25	+8.35	+0.12%
Nasdaq	24,656.42	-1.14	-0.01%
S&P 500 VIX	18.83	-0.09	-0.48%
Dollar Index	98.372	-0.040	-0.04%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